월요광장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가족 공동체를 생각한다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 사는 이야기 대부분은 '가족'에 관한 것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세상이 곧 가족의 모습이며, 싫든 좋든 태어나고 보면 누구나 이미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성장을 위한 기초적·물질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도 가족이다. 그럼에도 가족의 의미는 늘 막연하고 유동적이며, 가족관계는 왜곡과 균열이 상존하는 불안한 관계다.

사실 '완벽한 가족관계'는 애초에 불가능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지만, 가족을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 하며,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을 건강한 자세라고 뒤집어 말한다. 그래야 가족의 형태와 구성 조건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결손과 완전의 형태로 분리하기가 쉬우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족에 집착하는가? 개인으로 사는 것이 쉽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 아닐까? 결국 개인으로서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가족은 일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사회적 관계도 담당하지 못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가족은 사회관계나 조직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때로는 비합리적인 감정의 표출을 해도 비난이 아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어느 정도의 나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상호 의지를 한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의미에 기대어서 가족이야말로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고 여긴다. 이 지점에서 가족의 가치는 쉽게 변질 왜곡되어 일방적으로 신성시되거나 이념화되기 쉽다. 말하자면 가족의 가치가 이용당하고 변형되어서 가족주의 또는 가족 절대주의로 나가며, 가족 같은 관계를 내세우는 많은 사회적 관계와 조직들은 '절대 반지의 권력'을 쉽게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족적인 관계,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하면 한순간에 믿음과 친밀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가족주의가 놓은 가족의 덫을 알지만 못 본 척한다. 사회적 영역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호간에 보호와 결속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주장과 판단을 차단하고, '우리끼리'라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도, 직장도, 심지어 동창회나 동호회 등등에서도 관계의 가족화를 추구하며, 개인의 독립성은 억압된다. 가족적 가치를 앞세우는 가족주의의 문제는 실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가족주의의 더 큰 문제는 그 뿌리를 가부장제와 연고주의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그래서 '당신들의 천국'을 위해서 강하고 영웅적인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며, 족보 없는 '아무나'가 아닌 연고가 확실한 사람들끼리의 가족관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현상이다. 여기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농축되어 있고, 그 본질은 역사 속에서 세대를 걸쳐서 반복되어 온 삶의 고난과 척박함일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인 힘을 휘두르는 가족주의는 가장 위험한 병리적 현상을 보인다. '나'의 조직과 관계는 절대적이라는 가족주의는 착각일 뿐이며 가족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가족은 서로 공동체적 가치를 배우고 서로를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완성하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조직의 명분을 위해서, 조직의 기득권과 힘을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일까? 자신의 조직과 가족만을 잘 건사하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거대한 아버지의 우상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가부장적 아버지보다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 관계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안위와 유지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절실하다. 한 해가 저무는 12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설계하기에 참 좋은 때 아닌가.

社說

부영주택 '기대이익' 5천억 원 다 챙길 건가

부영주택(주)이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신축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부영 측이 얻게 될 개발이익이 최소 500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부영의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혁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학급 과밀화, 녹지 감소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대 이익의 최소 절반은 지역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과 주장은 가칭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익확대촉구 시민운동본부'가 최근 개최한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 사업 공익확대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경실련, 광전노협, 광주 전남 혁신도시포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공동 주관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진상 동신대 교수는 "한전공대 기부 부지 가격은 2010년 매입 당시 200억 원 수준으로 현 시세를 적용하면 800억 원인데, 용도변경만으로 부영 측이 얻는 기대 이익은 최소 5000억 원이 된다"며 "개발 이익의 50%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영 측 사업은 한전공대 부지 기증 행위를 참작하더라도 공공 기여가 크게 미흡하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전문가와 혁신도시 주민들도 부영 측 사업에 대해 "법과 제도를 따져볼 것도 없이 상식으로 봐도 엄청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건축사)은 부영그룹을 향해서 "돈벌이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는 것이 이중근 회장의 경영 철학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부영은 이들의 말을 아프게 들어야 한다. 나주시와 전남도 및 정치권 역시 더 이상 업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라도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실 수사 억울한 옥살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부실 수사가 죄 없는 시민을 성폭행범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0대 A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2017년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년 전 지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B양이 같은 빌라에 사는 것을 제외하곤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거짓 진술이 발단이었다.

A씨의 결백을 믿어 준 건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 C씨였다. 임신한 몸으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선 딸은 천신만고 끝에 B양을 찾아내 "A씨가 아니라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카인 B양에 대한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고모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모텔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됐다. 해당 모텔에 119일간의 영상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것도 A씨의 딸이었다. 경찰은 B양의 진술이 번복되는데도 이를 살피기는커녕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A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10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고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B양과 그의 고모 및 고모부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무고와 무고 교사,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잘못된 수사와 판단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색해졌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맹성을 촉구한다.

기 고

'국립 심뇌혈관센터'는 전남의 생명 나무다

안영근
전남대학교 병원 원장

심장은 고대로부터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돼 왔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곧 사망을 의미했고, 이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는 상식이다. 우리 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심장과 뇌가 아닐까 싶다.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함께 고령화·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2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예방 관리와 이 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가 국립 심뇌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2007년부터 전남대학교 병원과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심혈관질 환은 주로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데,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23.5%로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국립 심뇌혈관센터 유치가 절실했다.

전남도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전남대학교 병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앙 부처를 설득했다.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자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2010년 10월 국립 심뇌혈관센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수차례의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고, 연구 개발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 담당자와의 면담 등 설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과제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이 포함되어 센터 설립에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었고, 필자는 과제 책임자로서 국립 심뇌혈관센터의 필요성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전남은 국립 심뇌혈관센터 최적지로 비교 우위가 있었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10년 이상을 준비해 왔다. 전남대 병원 심뇌혈관계 융합연구센터는 심장 질환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다 동물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스텐트와 의료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육 시설이 갖춰진 우수한 정주 여건은 물론이고 심뇌혈관 환자 치료·요양·재활·힐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호남의 중심지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장성군이 선택됐다. 나노산업단지 일대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광기술원, 한국 심뇌혈관 스텐트 연구소,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인공지능(AI) 센터 등 주요 연구 기관을 보유한 광주 연구개발특구가 있어 첨단 의료기술 및 기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기반을 발판으로 올해 장성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어 현장 방문까지 이뤄졌다. 설계비 등 44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결실을 거뒀다.

전남에 국립 심뇌혈관센터가 설립되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최고의 심혈관 질환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세계의 유수한 심뇌혈관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심뇌혈관 분야의 새로운 치료 기술과 신약 및 의료 기기 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된 진료 지침 및 새로운 치료 기술 보급으로 의료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기초 임상 연구가 가능해지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4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 설계비 및 부지 매입비로 확보된 44억 원 이외에 센터 건립에 필요한 신축비 등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 심뇌혈관센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구성 등 행정 개편에 대비하여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향후 장성에 세워질 국립 심뇌혈관센터는 우리나라의 심뇌혈관계 질환 관련 사망률과 후유증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학문적 기여는 물론 의료기기 산업단지 유치, 첨단 의료산업 기술 혁신 및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생명의 땅' 전남에 국립 심뇌혈관센터라는 생명의 나무를 심어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열린 사회의 적들'

1997년 서른셋의 나이에 요절한 작가 김소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 바보 멍청이야. 열리긴 뭐가 열렸다는 거야. 다 닫혔어, 다 닫혔다구." 소설은 90년대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두 집단의 대립을 모티브로 한다. 논리와 합리를 앞세운 대책반과 단순하면서도 과격한 행동을 주장하는 '밥풀때기'(부랑자 집단)와의 대결이 전체 줄거리다.

작가는 외형상 열려 있지만 안으로는 폐쇄된 사회를 주목한다. 저마다 절절한 사연을 갖고 있는 밥풀때기들이 적일 수는 없지만, 소설에서는 '열린 사회'의 '적'으로 그려진다. 이 같은 관계는 허구를 넘어 우리 사회 여러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규범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역설적으로 동지와 동료가 '열린 사회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랑과 자비를 추구하는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최근 20년간 아동의 성을 착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경기도 어느 목사는 영적 돌봄을 핑계로 만행을 저질렀다. 위장 전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청춘을 빼앗은 신천지의 포교 방식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불교계에서는 얼마 전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해 '풀(full) 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혜민 스님이 종단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우리 사회는 오랜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뤘다. 많은 부분에서 열린 사회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닫힌 사회'로 남아 있는 집단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김소진의 소설 제목은 철학자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따왔는데, 칼 포퍼는 '마술적인 위력에 순종하는 부족적인'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정의했다. 우리 사회에서 열려 있으나 여전히 닫힌 사회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 혹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여전히 특권에 안주하려는 검찰이야말로 '열린 사회'의 '적'이 아닐는지? 그렇다면 이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기 고

19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누구나 좋아하거나 인연이 있는 숫자가 있다. 정약용 선생은 1818년 유배에서 풀려나기까지 18년 동안 18명의 제자를 배출하는 등 유독 18이란 숫자와 연관이 있었다고 한다. 다산보다는 못해도 우리가 살면서 9라는 특정 숫자가 징크스가 되거나 7은 행운으로 다가오는 경우처럼 이런저런 숫자와 인연이 있게 마련이다. 나에게 19라는 숫자 역시 통과 의례나 사회적 환경으로, 때론 배경으로 영향을 주었거나 심지어 전환점이 된 때도 없지 않다.

19는 성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길목이었다. 의지에서 독립으로, 객체에서 주체로, 방종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시기이기에 부족사회에서는 성인식을 엄격하게 치른다. 80년대는 꿈보다 방황, 자유보다 억압, 희망보다 불안과 우울이 더 많았던 시대였다. 그래서 강단보다 거리에서, 대학 교재보다 금서에서, 지상보다 지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던 시대였고, 열아홉은 늘 취업과 사회 문제라는 두 길목에서 이기적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살았던 때였다.

막걸리와 화염병이 벚꽃보다 더 화려하게 거리를 수놓은 시절, 어쩜 낭만적 사랑보다 더 치열하게 민주주의를, 나보다 우리를 먼저 내세우던 때였다. 나 역시 그 청춘들처럼 취업과 민주화의 틈새에서 비틀거리면서, 혼자 일어서고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한 것도 이 숫자를 대하면서부터였다. 스님이 오랜 면벽 끝에 성불하듯 어린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비상하기 위해 변태에 변태를 거듭하도록 나를 깨우치는 숫자였다.

19는 나를 마구 흔들어 댔다. 19 하면 대폿집 달력의 야릇한 그림이 떠오른다. 몰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친구와 극장에 들어가 에로틱한 영화를 보곤 했다. 광주항쟁이 막 지나간 다음 해였던지라 19는 정신적 영혼보다 육체를 먼저 깨운 숫자여서 3S 정책(스포츠·스크린·섹스)에 나도 마냥 흔들렸다. 방황, 격정, 청춘… 그래서인지 19는 멋지거나 아름다운 그림보다 흉터나 화인으로 남은 숫자이다. 19는 아무 준비도 없는 나를 금기의 바다로 거칠게 내몰았다. 나 역시 주체성도 없이 호기심만으로 무작정 바다를 항해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문득 어두운 터널이 끝났고, 훌쩍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난 운이 좋게도 열아홉 녀석을 여럿, 그것도 자주 만났다. 19세가 된 고3 녀석들이다. 18세까지 거칠고 포악스러운 녀석들이 19라는 숫자에 짓눌려 신기하리만큼 순해졌다. 야생마처럼 날뛰던 녀석들도 서서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차분해진다. 녀석들은 여느 때보다 부지런히 미래를 설계하고 어둠보다 빛을 찾는다. 장래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꿈을 찾아 도전하는 19세들, 코로나19의 제일 큰 피해자임에도 당당하게 전진하는 그들은 늘 나에게 즐거움과 용기를 주었다.

19를 뒤집으면 91이 아니라 61이다. 61은 두 번째 19이다. 제2의 사춘기이자 다시 찾아온 청춘. 61은 갑이다. 타인에게 갑이 아닌, 나 자신에게 갑이 되어야 하는 출발점이다. 자유가 아닌 절제를, 주체라기보다 물러설 줄 아는 관망을, 독립이라기보다 겸손을 익혀야 하는 늦가을 어디쯤이다. 19가 육체적으로 성숙한 전환점이었듯이 61은 정신적으로 더욱 깊어져야 하는 변곡점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삶과 달리, 두 번째 청춘은 나를 먼저 버리고 비워야 한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내적인 사유로 자유를 얻는 시작점이어야 한다. 1과 9는 시작과 끝의 숫자이자 둘을 합치면 10이라는 완성의 숫자가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일구는 유독 술을 좋아한다. 누가 19 아니랄까 봐 영화나 TV도 19금(禁) 아니면 보지 않는다. 난 지금 무등산이 훤하게 보이는 19층에 산다. 송정역을 갈 때면 집 앞에서 19번 버스를 탄다. 이처럼 수많은 19는 내 주변에서 나를 흔들거나 이끌기도 했으며 나를 일깨우기도 했다.

작년은 2019년이었다. 내게 마지막 19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만날 19는 그리 많지 않을 성싶다. 2119년까지 산다는 것은 기적이지만 살아갈 세월이 19년이 더 된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 바란다면 19일 전에 내 죽음을 알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도 욕심이다. 어쩜 19초 전은 혼수상태에 있지 않을까.

19는 내가 세상을 엇나갈 때마다 중심을 잡아 주고, 앞서가거나 뒤처지면 삶의 보폭을 조정해 주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19가 내 삶을 단편적이거나 획일적으로 살지 않고 다초점 시각으로 살도록 하였으며, 삶의 자세를 건강하게 잡아 주는 친구이자 앞길을 안내해준 스승이었던 것 같다.

혹여 다시 19가 찾아온다면 불행한 19일지라도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고, 행복한 옷으로 입히고 싶다. 달관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마음자리는 곱게 정돈해야지 싶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